

# 적절한 도태는 수익을 증대시킨다.

<하이섹스 월드에서>



산란중의 닭은 치골과 치골사이에 세손가락의 간격이 있다. 산란이 정지되면 치골 간격은 좁아져 손가락 1개가 들어갈 수 있을 뿐이다.

알도 낳지 않고 비싼 사료만 소비하는 닭은 도태해야 한다. 이러한 닭들로 인해 계란 생산비는 상승하게 되고 양계가는 많은 손해를 보게된다. 더욱 요즈음과 같이 사료값이 비쌀 때는 이러한 불필요한 식객들을 제때 뽑아냄으로서 생산비를 절감하여 보다 유리한 경영을 할수 있게 될 것이다. 적절한 도태로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을 하이섹스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어떤 닭을 도태해야 할까?

병들고 쇠약한 닭을 도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건강하면서도 알을 낳지 않는 닭들을 뽑아내는 것은 더욱 당연한 일일 것이다. 닭이 산란을 양하게되면 다음과 같은 신체상의 생리적 변화가 일어난다.

1. 벼슬, 육수의 크기가 위축되고 색깔이 선홍색에서 창백한 분홍색으로 변한다.
2. 닭의 신체각부위에 침착된 노란색소는 알을 낳기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퇴색되기 시작하며 산란이 정지되면 다시 다음 순서대로 2배의 속도로 착색되기 시작한다.

부 위	첫알을 낳은 후 퇴색에 걸리는 시간
항 문	4~7일
눈 자 위	7~10"
귀 뿌 리	2~3"
부 리 기 부	4~6"
부 리 끝	6~8"
발	8~10"
정 경 이 앞 쪽	15~18"
" 뒤 쪽	20~24"
" 관 절 부 위	약 24주일

3. 항문-산란을 잘 할때는 크고, 타원형이며 습기가 차 있던 것이 작아지고 건조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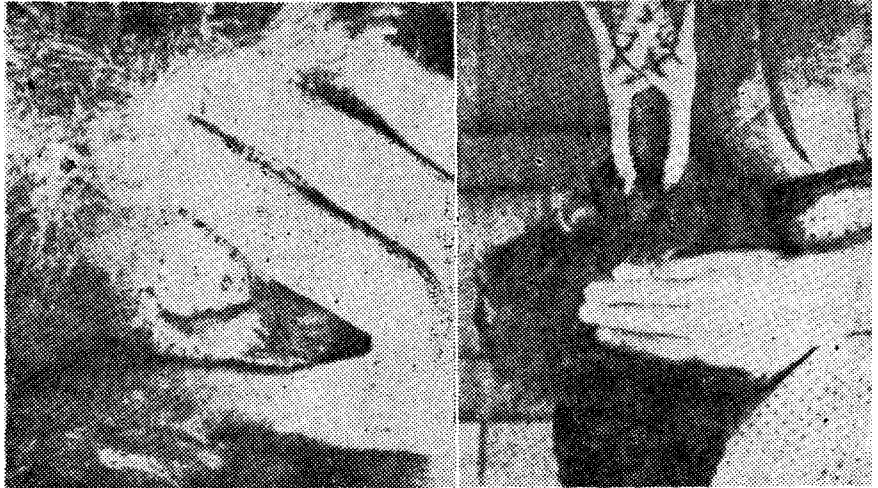
4. 치골의 간격-항문 양쪽 끝에 뾰족하게 나와있는 치골사이의 간격이 좁아진다. 산란을 잘하고 있을때엔 치골사이에 세 손가락이 들어갈수 있고, 산란이 이미 정지된 닭에 있어서는 손가락 한개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이다.

5. 앞가슴 뼈와 치골과의 거리가 손가락 4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이면 산란을 잘하고 있는 상태이나 산란이 멈춘 닭은 2개의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이다.

6. 온도의 급변, 점등, 불, 사료등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저하하고 목 부위에 부분적인 환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때에는 도태할 필요가 없

으나 날개에까지 털갈이가 시작되면 도태를 고려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신체적인 변화는 산란중지 후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6주 정도 지나야 외모로 명확한 차이를 알 수 있게 된다.



홍골단과 치골사이의 간격은 닭이 산란을하고 있는지, 얇아는지의 여부를 아는 데 좋은 기준이 된다. 손가락 4개가 들어가는 간격이면 산란을 잘하는 닭이다. 산란계의 항문이 크고 타원형이며, 습기가 차 있으면 좋다. 산란이 정지되면 항문이 작아지고 건조해진다.

날개 그리고 꼬리의 순서이다. 머리카 나 목의 털갈이는 그리 심한 영양을 주지 않겠지만 날개의 털갈이가 진행된다면 도태할 것이나 아니냐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 털 갈 이

닭은 매년 털갈이를 하여 새로운 깃털을 갖게 된다. 그러나 산란을 잘하는 닭은 산란한지 12~14개월을 지나서야 환우를 하고 산란을 잘 안하는 닭은 몇 개월만에도 털갈이를 하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산란을 잘하는 닭의 깃털은 부러지고 지지분한 것으로 덮여있고 산란 잘 안하는 닭의 우모는 스무스하고 깨끗한 것이 보통이다. 털갈이 하는 것을 보면 2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 한부류는 환우를 일찍 시작하여 한번에 깃털이 하나씩 밖에는 떨어지지 않으므로 한번 환우를 끝내는데 4~6개월이 걸린다. 이런 닭들은 애초에 도태 시켜야 한다. 또 한부류는 가을에 나가서 늦게 환우를 시작할뿐만 아니라 단번에 몇개씩 떨어 뜨려 2개월이면 환우를 끝낸다. 이러한 것은 좋은 닭이다. 털갈이는 연중 어느때나 사양관리가 나빠지면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럴때 털갈이의 순서는 머리, 목, 앞가슴, 몸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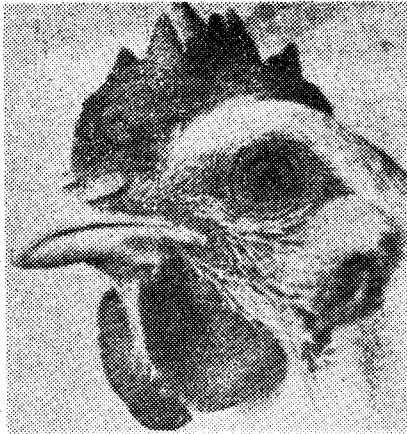
### 도태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

1. 초산전 도태에서 주의해야 할점. 초산전에 도태해야 할 경우에는 외모가 기형인것, 질병증상이 뚜렷한 것만을 도태한다. 성성숙이 늦었거나 약간 약하게 보이는 정도에서 과감한 도태를 해서는 않된다. 몇년전 북아일랜드의 러프리 대학에서 초산직전의 닭 515마리를 익숙한 도태기술자를 시켜 3부류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는 266수가 가장 좋은 산란계로 88수가 가장 나쁜 능력을 낼 것으로 판단되었고 나머지 161수가 중간정도의 산란을 해 줄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과는 3구름 모두 전 산란기간의 산란수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초산전의 관찰이 초산시의 능력밖에는 관찰되지 못하고 전기간의 능력을 알아내는 지표가 되지 못함을 말해주고 있다.

2. 일단 산란이 정지된 닭일지라도 영원히

정지되지 않고 곧 회복될 수 있다. 케이지 한칸에 산란계 한 마리씩을 수용하고 매일 산란기록을 해보았다. 어떤 닭은 몇주일간을 하루도 걸르지 않고 매일 산란을 하지 않고 매일 산란을 하다가 다시 산란을 한다. 이 휴지기(休止期)가 때로는 3주까지도간다. 휴지기를 거친후 다시 전과같이 좋은 산란을 계속한다. 이렇게 산란을 하는 닭을 중간에 도태하지 않고 유지시키면 주간에 300개 이상을 산란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휴지기에 산란검정을 하면 잘못 도태시킬 위험성이 있게 된다. 경험이 많은 양계가는 닭의 복부 지방상태, 건강도 기타 신체적 특징 등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희망이 없는 산란계를 잘알아 내고있다.



위의 2마리의 닭중 어느 것이 산란을 잘 할까? 언뜻 보기에 벼슬과 육수가 잘 자란 닭이 산란을 더 잘할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성숙이 좀 빠를 뿐이다—이러한 닭이 반드시 산란을 잘 하는 닭이 아니다.

.....  
**도태를 언제 할까?**  
 .....

계획적으로 닭을 도태하게 되는 첫번째 시기는 닭이 32~36주령 경이다. 이때는 아직

성성숙이 되지 않은 닭, 숫놈 모습을 한 닭등을 뽑아낸다.

두번째는 닭을 도태할 좋은 시기는 닭을 도태하기 2개월 전이다. 이 때에 환우계 건강치 못한 닭등을 모두 추려낸다. 도태 2개월 전에 닭을 추려내는 이유는 이 시기에 산란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태는 1) 사료의 이용능율을 높이고 2) 밀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3) 폐사율을 미연에 방지하며 4) 매일 도태를 위해 닭을 관찰하므로써 다른 질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 三正農苑 (70일雛)

清淨環境에서 完璧하게 飼養管理된 有名品種을 宅의 양계장까지 안전하게 輸送.

- 有名品種—하이섹스, 바브콕, 세이바
- 育成方法—初生雛時 샷갓평사 中雛時 노천케이지
- 防疫計劃—계절적인 표준접종계획준수
- 發育度—品種別표준체중보증
- 輸送—수송상자, 도착책임.

계약사육접수중 <단가(70일추=650원)>

**三正農苑**

代表 李 晤 炯

연락처 : 양지가축약국 56-1938

京畿道廣州郡五浦面陽筏 1里261

성 약 원 55-3177